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69.85 (-18.33)	799.06 (-12.0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681 (-0.020)	1296.90 (0.00)



## 고금리에 가계·기업 빚 눈덩이... 韓 불황그늘 짙어진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 주담대 증가로 가계대출 지속 늘어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3위로 높아 한은 “성장세 둔화·경기침체 우려”



유도이미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실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100.2%로 주요 6개국 중 4위로 집계됐다. 스위스(125.5%), 호주(110.0%), 캐나다(102.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분기에도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 ◆ GDP 대비 가계대출 100.2%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넘어서던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분자인 GDP가 성장세를 보여서다. 한

국은행에 따르면 GDP는 지난해 말 -0.3%에서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성장했다.

가계대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조2000억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6월 5조8000억원, 8월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6월, 8월은 모두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주담대 증가액이 많았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였음에도 주담대가 늘며 가계대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한다. 한은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제한돼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주담대에 쏠려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 ↑

기업부채도 지켜보던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3분기 GDP 대비 비(非) 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26.1%로 1년전(120.4%)과 비교해 5.7%포인트 늘었다. 홍콩(267.9%)과 중국(166.9%)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는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을 선호하면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로 운영되는 회사채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단기로 기업대출을 받는 비중이 늘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oul.co.kr



논술고사 마친 수험생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

## GM·듀폰 등 美 4개社, 한국에 1.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 訪美 중 투자신고 연간 4.5조 수출확대 효과 예상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기업 4곳이 한국에 1조5000억원(11.6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GM·듀폰(Dupont)·IMC·에코랩(Ecolab) 등 4개 기업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정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

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GM의 투자계획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은 100명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듀폰은 지난해 9월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소재 EUV용 감광제·화학기체 연마 패드·패키징 R&D센터 및 제조시설 증설에 투자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폴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허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APEC 마친 尹, 민생 점검하고 경제외교 이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 영국 국민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18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여하기 위해 ▲교역·투자 및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분야별 ‘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비롯해 APEC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특별 이니셔티브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

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에너지 안보·기술 관련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IPEF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 발동되는 각국 고위급 회의체인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 등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野,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 예산 늘려... 무소불위 폭주” /사진 뉴스스  
▲ 與, 이준석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당 전열 정비·화합에 좋지 않아”

▲ 민주,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문구 삭제... “당 아닌 업체 제작”  
▲ 민주 “아동학대·폭력 여전... 정부 역할 강화해야”



▲ 신원식 “북, 일주일 내지 늦어도 30일 전에 정찰위성 3차 발사” /사진 뉴스스  
▲ 외교장관, 캐나다·멕시코 회담... 북 인권문제 지원 당부

# 내년 봄, 1인가구 1000만 시대... 4인가구 10년간 100만개 ↓



##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DX, 생존위한 필수적 혁신 4차혁명 산업계에 '이정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전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 보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 강연 :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제9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분실공고

분실내용 : 분양계약서 분실  
 동작합성휴포레시그니처상가 104호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우)07074

소유주 : 김혜민

2023년 11월 20일

행안부, 1인가구 수 992만개  
전년 971만 대비 20.1만 ↑  
전체가구 중 1·2인가구 66%  
3인가구 10년간 34만개 ↑

국내 1인가구 수가 반년쯤 후  
역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  
체가구 5곳 중 2곳이 1인가구였  
고 국민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  
하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지 않  
는 추세 속에 2인가구 역시 크게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인가구(세대) 수  
는 992만 개를 넘었다. 전체 가  
구(2369만 개)의 41.0%이자 전  
체 인구(5135만 명)의 19.3%에  
달했다. 둘 다 역대 최고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  
다. 한편 전체 가구 수도 완만히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난 1970년대 산아제한 등 정부 주  
도 가족계획 홍보물. /국가기록원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4인가구  
등의 수가 내림세인데 반해 1인  
가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1인가구는 1년 전(971만 명)  
에 비해 20만1000개 증가했다.  
월평균 1만6800개 불어난 흐름  
이 이어진다면 향후 5개월 내 8  
만4000개, 6개월 내 10만개 증가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  
라 내년 4월이나 5월쯤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에 2인가구(10월 584만

개)까지 합하면 1577만으로, 전  
체 가구 3곳 가운데 2곳(66%)이  
1 또는 2인가구다. 1·2인가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683만  
·412만)과 비교해 각각 305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된 모습  
이다. 또 이 같은 행안부 통계에  
는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는 추세도 담긴 것으로 추정  
된다.

지난 10년간 3인가구 역시 적  
게나마 증가(34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13만에서 316만으로 100  
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5인가  
구도 40만 개 이상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8년 10월만 해도  
4인가구 수(426만)는 2인  
(354만)·3인(354만)보다 많았  
다. 당시 1인가구는 598만 개로  
전체 가구의 31.6%에 그친 바  
있다.

15년간 전체 가구 수는 1인가  
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 및 신축  
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5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다. 전국 인구는 2008년  
이후로도 10년 남짓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  
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 전국  
평균(41.0%)을 넘는 44.5%  
(447만 가구 중 198만)가 1인가  
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거주민(949만 명)의 21.1%가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가구의 34.7%, 도시 인구  
의 14.4%만이 1인가구였다.

지난달 국내 6인가구 수는 14  
만5000, 7인가구는 3만2000, 8  
인가구는 8500, 9인가구는  
2600, 10인 이상 가구는 2500개  
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민센터서 행정전선상 작동 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  
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  
행정전선상망인 '새움'과 사회보장통합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  
인하고 있다. /뉴시스



## '말로만 신사업' 주가떡은 상장사 전면조사

금감원, 신사업 추진현황  
사업목적 추가 233개사 중  
55%, 129개사는 추진안해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주가부양 등을 위  
해 '말로만' 신사업에 진출한 상  
장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  
선다. 2차 전지 등 증시에서 인  
기를 끌었던 테마 신사업에 진  
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가 구  
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  
혀 없었고, 일부 불공정거래도  
의심되면서다. 회계처리부터 불  
공정거래 혐의, 자금조달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  
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  
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  
시한 결과, 주요 테마업종을 사  
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

개사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가  
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  
었다.

금감원 회계감리1·2국은 신  
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  
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129개사 중 이미 심사대상으  
로 선정된 14곳은 미추진과 관  
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  
인과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  
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  
사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  
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  
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획조

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허위 신사업 추진과 관  
련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  
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  
수했고, 다른 기업에 대한 모니  
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신사업  
을 발표하는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신속하  
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  
업은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작  
성했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  
조달과 관련해 실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 과정  
에서 불공정거래나 허위 회계처  
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나  
오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추진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  
해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국내 '민간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수출 OK

인니 할랄인증청-한국 기관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  
내 민간 할랄인증만으로 인도네  
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  
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  
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  
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  
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  
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  
정으로, 양국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  
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부당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

‘결백-실형’ 평행선... 사법리스크 장기화 되나

〈이재용 회장〉 〈檢〉

檢, 징역 5년에 벌금 5억 구형  
“합병 통한 공짜 경영권 승계”

이 회장, 결백 주장... 선처 호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결국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후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법 위반, 배임 등 혐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원들도 적지 않은 구형을 받았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차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공짜 경영권 승계’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가로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벌써 8년, 10년 넘기나  
이 회장은 8년 가까운 시간 법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5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처음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돼 2021년 실형을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긴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삼성도 그동안 혁신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폴더블 혁신 등으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였던 미래 전략 수립과 지배 구조 개편 등에서 지지부진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유례없는 ‘빅딜’ 기회까지 맞았지만, ‘의미있는 M&A’에 실패한 이유도 이 회장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 대부분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06차례 중 95차례나 직접 자리를 지켰다. 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끝내기 위한 진심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해 사면된 이후에도 그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며 “굳이 적극적으로 출석한 이유도 직접 증언을 해야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국 이 회장 사법리스크는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야 1심이 끝났고, 2심과 대법원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뚜렷한 증거 없이 적지 않은 구형이 나오면서 1심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항소심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증거 없어... 승복 관건  
대법원 판결 시 수년 이상 소요  
재계 “韓 경제 동력 잃을 수도”

그나마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 회장이 이번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농단’으

로 실형을 살았던 만큼, 실형이나 과도한 형량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회 호소, 왜?

이 회장이 앞으로도 수년간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 ‘뉴삼성’ 선언도 더욱 미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故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와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신경영선언’ 후 30년만, 2010년 ‘5대 신수종’ 발표 이후에는 13년만이다. 이 회장이 2018년 ‘반도체 비전 2030’ 등 미래 투자 방침을 선언한지도 5년이나 지났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를 통해 미래 투자에 나선다는 것.

당장 현안도 산적해있다. 반도체 미세공정 난이도 증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 업계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미중무역 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변화로 삼성 전자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삼성 성장 동력인 오너 경영에 따른 빠른 의사 결정과 전략 변화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 많은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이재용 회장이 대외 활동을 늘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이유도 처벌보다는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고금리에 가게·기업...’서 계속

〈국가별 GDP대비 가계부채〉

국가	GDP대비 가계부채
스위스	125.5
호주	110
캐나다	102.9
한국	100.2
홍콩	95.2
태국	91.5
영국	78.5
미국	73.2
말레이시아	67.8
일본	64.7
중국	62.7
유로	54.6

단위:% /국제금융협회

기업대출 비율 5.7%p ↑  
“일부 디폴트 위험 노출”

다만 기업대출 비율이 1년전보다 높아진 나라는 34개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러시아(68.2→81.6%)와 중국(158.3→166.9%)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0일 기준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간 금리차는 61.9bp(1bp=0.01%포인트)이다. 2017년 2월(71.7bp)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 BB- 등급과 AA- 등급도 63.7bp 차이가 난다.

이 경우 고금리가 지속돼 금융기관들이 민간부문 대출을 줄이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출 여건이 더 팍팍해지면 차입비용이 상승해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며 “기업대출로 부실은 잠시 유예될 수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중저가폰·통합요금제, 통신비 낮추기 속도... 실효성은 '글썸'

애매한 단말기 가격에 절감 미지수  
통합요금제, 파격적 가격 아닐수도  
KT,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 출시  
정부, 내년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30GB이하 소량, 데이터양 세분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사는 안모씨(33세)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다. 이에 매달 통신비로 6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최근 5G 속도까지 느려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비판에 직면했다. 단말기에 상관없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케 하고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가 유의미하게 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최근 5G 품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LTE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파격적인 가격대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통신비 대책인 3만원대 5G 요금제는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통합요금제·중저가 단말기, 애매한 가격 '글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은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중저가폰 활성화 ▲최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 등이 있다.

문제는 통합요금제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5G 품질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LTE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초당 896.10Mbps로 LTE 다운로드 속도(151.9Mbps)의 6배를 넘는다.

특히 통합요금제의 가격도 파격적인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통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PRU)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요금제로 경쟁을 펼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의 3분기 ARPU는 ▲SK텔레콤 2만9913원 ▲KT 3만3838원 ▲LG유플러스 2만7300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개 분기 연속 ARPU가 3만원을 하회하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KT는 13개 분기 만에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였으며, LG유플러스는 8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또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KT와 협업한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가 10일 공개됐으며, 갤럭시 S23 FE도 연내 출시가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저가폰 중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저가폰이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애매하다는 평가에서다.

실제 삼성전자는 저가 라인업을 대폭 정리하고 100만 원대의 폴더블 팬에디션(FE)과 같은 중저가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저가 라인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저가 기종인 A7 시리즈는 상위 10위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더 이상 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또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4만원대 후반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또 30GB이하 소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저렴한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강의 만족도 94%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6%

바른 신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96%

신천지예수교회 3연속 10만 수료

# 108,084명의 ?가 !로 바뀐다

우리는 신앙과 신앙의 근본인 말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고,  
성경 말씀 강의를 통해 느낌표를 얻었습니다.

11월 12일, 이 느낌표를 얻은 108,084명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신학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4기 수료생  
108,084명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정부, 미래 주파수 확보 경쟁 국내 이통3사 반응 '미지근'

국내 통신사 5G 품질 고도화 등 포기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 도전 전망

정부가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는 20일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중책까지 맡았다. 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품질 '고도화'는 물론 28GHz 주파수도 포기하면서 정부는 새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WRC-23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6G 비전과 6G 표준화를 위한 ITU 표준화 절차 및 명칭(IMT-2030)이 최종 승인됐다. 이는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결정하게 될 WRC에 앞서 국제 표준화 초석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우리나라가 ITU 전파통신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국을 수립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통신사들은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5G 28GHz 주파수도 포기한 상황이다. 28GHz는 주파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사업 모델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8GHz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오는 20일 정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한 5G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점치지만, 이미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동안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79-7490 | e-mail : ibkethics@ibk.co.kr)

# 與 혁신위 “전략공천 원천 배제해야”... 당 지도부 ‘난감’

‘상향식 공천’ 통한 공정경쟁 제안  
대통령실 인사 ‘낙하산 논란’ 차단  
당정 관계 수평적으로 회복 의도

당 지도부, 전략공천 포기 어려워  
‘100% 경선’ 실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시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진윤계(진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협치 출마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100% 경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비교적 당선이 용이한 지역에 출마해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차단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 당원과 지역구 민심을 가장 큰 틀로 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의 권고대로 중진·진윤 인사가 물러난 자리를 경선으로 채워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0% 경선’은 중진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혁신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혁신위) 중진들이 희생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4호 혁신안 발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과거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

다”며 중진·진윤계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지역구 경선’을 의미한다. 중앙당 공천 기구에서 출마자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 경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총선 전략 중 하나인 전략공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은 총선에서 경선과 전략공천을 병행해왔다. 통상 경선은 그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나 현역 의원이 나서고, 경선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당에서 정한다.

반면 전략공천은 상대방이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후보를 내놓기에 지역 연고나 활동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맞춤 후보’를 내놓고,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 만들어 화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또 경선은 출마를 희망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능하다. 열세 지역이거나 강력한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엔 경선이 쉽지 않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한다면 기존 당협위원장에 비해 지역 활동 기간이나 연고가 약한 인사들은 합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진윤계 불출마·협치출마 권고 이행이 전제돼야 효과적이다. 전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권고가 이행돼야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꺼내들어 당 주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위의 권고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당사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만일 일부 중진·진윤계 등이 권고를 받아들여 협치에 출마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경선을 뚫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결국 ‘100% 경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非명계, 세 확장 본격화... 청년 정치인과 당 지도부 비판

원칙과 상식, 청년 간담회 열어  
조웅천 “당내 민주주의 역대 최악”  
최근 논란된 ‘청년 비하’ 현수막 비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4인방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원칙과 상식’의 세 확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원칙과 상식은 첫 공식 행사로 당 안팎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웅천 의원 등 4명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칙과 상식 1. 민심소통 : 청년에게 듣는다’란 간담회를 열고 청년 눈높이에서 진단한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하현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양소영 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윤영찬, 조웅천,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대학생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웅천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 최악”이라며

서 “진문(진문재인) 패권·천박(천박근혜) 패권, 진명(진이재명) 패권까지 다 경험해봤는데, 진명패권이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라며 “갑론을박하면서 필터링이 이뤄지면서 정당 결정의 오류가 수정되는 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현수막 시안이 청년세대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도 “실제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체제다 보니 무오류라는 편견에 빠져있다”며 “잘못되면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담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탈모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지난 대

선 때는 민주당이 뭘 공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으니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를 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 거대담론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며 2030이 타겟이라고 했다”며 “2030이 개인 이기주의에만 매몰됐으면 공정과 상식은 뭐고, 젠더갈등은 뭐고, 반중정서는 무엇이겠나. 그게 다 거대 담론인데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수막도 대선때 있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의 연장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현수막에 경약을 금지 못했다”며 “우리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 행정 전산망 먹통에 與 “송구한 마음” 野 “尹 직접 사과해야”

與 “복구 총력... 근본 대책 마련”  
野 “안내문자 없이 각자도생 권해”

여야는 19일 최근 행정 전산망의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관계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

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면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

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서예진 기자

## 오늘 영국 국민방문·프랑스 순방 출국

>> 1면 ‘APEC 마친尹’서 계속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내각으로부터 행정 전산망 마비 등 국내 현안과 경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부합동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민방문에 이어 23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민방문을 통해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군합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뒀다.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민방문 기간 국민 공식 일정을 비롯해 한영 정상회담,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왕립학회가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영국 국민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파리 주재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관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

# SH가 잘하는 일입니다



### 설계도면 공개

원개내역서 공개와 더불어 S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경영 실천

###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익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모두 공개

###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적정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입,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 사전에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생보사 자존심 지켰다

신계약 CSM 12.2% 증가로  
3분기 순익만 4756억 기록

한화·교보생명은 실적 악화  
고금리에 FVPL 손실 잇따라

삼성생명이 국내 1등 생명보험사의 자존심을 지킨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체면을 구겼다. 고금리에 FVPL(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실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생보사 '빅3' 가운데 삼성생명은 유일하게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겼다. 삼성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 4497억원으로 전년 동기(8395억원) 대비 72.7%(약 6000억원) 급증했다.

3분기만 놓고 봐도 삼성생명은 4756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7.7% 증가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9564억원으로 전년 동기(8522억원) 대비 12.2% 상승했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삼성생명

보험영업 부문에서 성장지표로 활용되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3분기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700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APE는 전년 동기 4582억원 대비 33.4% 증가한 6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신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생보사의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3분기 누적 순익은 한화생명 8448억원, 교보생명 6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6%, 14.2% 감소했다.

한화생명의 3분기 순익은 357억원으로 전년 동기(5337억원) 대비 93.3% 급감했다. 심지어 교보생명은 3분기 329억원 손실을 봤다. 지난해 3분기 1204억원의 순익에서 오히려 적자로 전

환했다.

생보사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올해 IFRS17과 함께 IFRS9(금융자산 회계 기준) 도입으로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FVPL이 지목된다.

기존 IAS39 기준에선 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 증권의 가치평가가 순익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IFRS9에서는 증권이 FVPL로 분류돼 평가익은 순익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따라서 FVPL 평가 손익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규모가 큰 생보사들은 FVPL 규모가 크다 보니 금리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크게 노출됐다. 업계는 보험부문이 아닌 대외적인 요인으로 투자영역에서 손실을 크게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판매 실적이 양호했으나 자산 및 투자부문의 평가손실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신계약 APE는 2조 565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743억원) 대비 86.6% 증가했다.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보장성 APE는 118% 증가한 1조 7932억원을 달성했다.

교보생명도 보험부문에서는 328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FVPL 손실 영향으로 투자부문에서 768억원의 손실을 봤다. 평가손실 1599억원, 처분손실 1189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총 2788억원의 손실이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과 투자의 평가이익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에 FVPL 손실 영향으로 FVPL 비중 높은 생보사들이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때문에 보험사들은 투자 및 채권 부문에서 평가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금리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급락'

3~6개월 내 동시 승인 가능성 높아  
美 긴축종로 예상 등 상승동력 충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초 승인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 64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3만 7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서류 중인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브라질 가상자산운용사 해시텍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서 연내 현물 비

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내 상장기대가 높았지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시기를 내년으로 전망해,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쇼엔필드 마켓벡터인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3~6개월 내 동시 승인될 것"이라며 "SEC가 최근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고,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SEC는 내년 1월 10일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수개

월 안에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그널과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에 불과했지만 12월 말에는 2만 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40%가량 상승하면서 잠재적 호재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v2665@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 서울 집값 26주째 상승... 매수 관망세

'목동 대림' 한달 새 5000만원 ↑  
정비사업 기대 단지 위주 거래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

최근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관망세를 보이며 전주(0.05%)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6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08%→0.10%)가 성수·금호동 중소형, 광진구(0.08%→0.07%)는 자양·광장동, 용산구(0.11%→0.10%)는 이촌·산천동 주요단지, 동대문구(0.12%→0.10%)는 제기·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09%→0.08%)가 염창·화곡동, 양천구(0.09%→0.11%)는 목·신월동 역세권, 영등포구(0.09%→0.11%)는 당산·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3%→0.12%)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오

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대림'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매매가격(12억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73㎡가 14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14억 4000만원) 대비 1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다.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7.6)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 정부, 진료비 게시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 업무협약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

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의 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에 반려인이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 “오래 기다려도 설레요”... 신작 체험에 구름 인파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현장에는 오랜만에 복귀한 게임사 수장들이 자사의 신작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 체험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 2023은 42개 나라에서 1037개 기업이 3328개 부스를 열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2019년 3208개 부스)을 경신했다.

이번 지스타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 엔씨 등 주요 게임업체 대거 참가 자사 신작 직접공개에 기대감 높아 게임전시 등 다수 스포츠 행사 진행 하이브 등 B2B 부스로 신기술 소개

또 하이브,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킴즈, 펠어비스 등은 B2B 부스로 참가해 신작과 신기술을 소개했다.

올해 지스타에는 8년만에 복귀한 엔씨소프트와 9년만에 스마일게이트의 수장들이 행사에 직접 참가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주는 지스타 개막날인 16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랜만이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준비했다. 새로운 장르의 신작으로 참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게임을 즐기는 고객층도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 서브컬처 등 장르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장르가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NC)는 지스타 기간동안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ATTLE CRUSH)' ▲수집형 RPG '프로

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내달 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신작MMORPG TL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또 MMORTS '프로젝트 G'와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프로젝트 M'은 관람객들에게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 현장 부스에는 체험을 하고 있거나 대기중인 게이머들의 문전성시를 이뤘다. 엔씨 부스 앞에서 만난 김 모씨(21)는 “슈팅게임 LLL을 체험하러 왔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9년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MMORPG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공개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기존 PC게임인 '로스트아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출시한 게임이다.

이날 현장에는 권혁빈 CVO가 비공식 방문해 자사게임뿐 아니라 타사 게임까지 체험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권혁빈 CVO는 현장에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 크래프톤에서는 '프로젝트 인조이',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와 슈팅 게임 'LLL'을 체험했다.

현장에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권 CVO가 비공식으로 방문했지만 게임 체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은 미리 받았다. 방문 시간이나 날짜는 몰랐다”고 말했다.

게임 체험 후 권영식 CVO는 자사 신작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그는 “모두 열심히 했다. 게임업체를 응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한 '로스트아크'의 지난해 매출은 7370억원, 영업이익 364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수치다. 로스트아크를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

는 이 모씨(19)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로스트아크가 기대된다.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설레는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다크앤더커 모바일'과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연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크앤더커 모바일은 게임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이언메이스사의 다크앤더커 IP를 크래프톤이 인수, 자회사 블루홀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작이다.

게이머들이 데모 플레이를 해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시 부스를 찾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는 게임 등 다각도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크리에이티브(창조성)를 발굴,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2023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위메이드는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판타스틱4베이스볼'을 출품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한 MMO RPG다. 최신 언리얼엔진5 기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완성했다. 실제 '지스타' 시연 버전을 통해 체험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고품질 그래픽이 눈길을 끌었다.

판타스틱4 베이스볼 시연 버전도 최초로 선보였다.

현장을 방문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해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나이트 크로우'가 내년 해외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 더 큰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어울리는 방식대로 가되 그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다른 게임을 선보이는 식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신작 시연 부스뿐만 아니라

가수 청하의 공연, 드론쇼, 롯데디자인즈 박세웅, 나균안 선수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선보였다.

넷마블은 신작 3종 '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 '데미스 리본', 'RF 온라인 넥스트'를 게이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100부스 규모로 마련했다. 특히 이벤트 모드인 풀루언서 대전에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성승현 캐스터와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인플루언서 대전에는 뜨뜨뜨뜨, 변승주, 김성희, 수피, 구루미, 주서리가 참가했으며, 웨이브마다 특수한 효과를 지닌 카드를 선택해 전투를 진행하는 '이벤트 모드'로 대전을 펼쳤다.

### 인플루언서와 이벤트모드 대전 게임 코스프레 의상 입고 찾아 굿즈위한 스탬프 모으기 인기 넥슨 불참에 아쉬움도 내비쳐

현장에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찾은 관람객들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을 체험해 보기 위해 1시간가량 대기하거나, 게임 굸즈를 위해 스탬프를 모으려는 노력을 마다치 않았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도 대거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일각에선 넥슨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이 끝나서 왔다는 이 모씨는 “올해 지스타는 역대급 큰 부스라고 해서 바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왔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서 기대한만큼이었다. 하지만 넥슨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스타에 불참한다고 밝힌 넥슨은 행사 기간 벡스코 오디오리움에서 일렉트로닉 아츠(EA)와 함께 축구 게임 '에프시(FC) 온라인'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유저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스시스



스마일게이트 RPG가 지난 16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3'에서 블록 버스터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전시관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뉴스시스





지역별 선착순  
특허공법으로 **즉석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 AMAS 즉석맞춤깔창



## 판매점 모집



연기 인생 반세기,  
탤런트 김경하



탤런트 이경영

###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쑥~쑥 AMAS 즉석 어린이성장깔창



**발**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http://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CHEF'S SPECIAL

# 명작반미

대한민국 조리명장이 만든 '명작' 반미



**크랩&슈림프 7,600**  
Crab & Shrimp



**바질슈림프 7,400**  
Basil Shrimp



14대 대한민국 조리명장

**남대현** 名匠



BNK부산은행, 부산엑스포 기원 환경정화 봉사

BNK부산은행은 지난 18일 2030 세계박람회 선정을 열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서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투협, 자선야구대회 성황... 유진투자증권 우승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야구장에서 '제10회 금융투자협회장배 자선야구대회' 결승전과 폐막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순천향대,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순천향대학교는 17일 교내 동아홀에서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사랑 듬뿍 김장 나눔' 행사 참여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2023 사랑 듬뿍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대, '공작기계 창의 공모전' 장관상 수상

울산대학교는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뤄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국 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동폭행죄' 판단 기준

3명이 같이 모여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할 것을 계획했다. 실제로도 1명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위 3명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1명만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불과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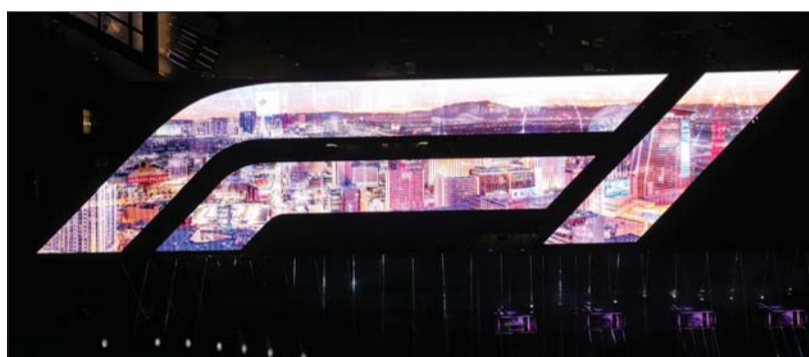
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의 범행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이 모여 범행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폭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범죄현장에서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2명에 대한 폭행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명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인지의 모습.

삼성, 美 'F1 그랑프리' 빛났다

스마트 LED 사인지 공급 태양 빛 아래서도 8000니트 밝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인지가 걸렸다.

이번 F1 그랑프리는 41년만에 라스

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경기장 전역에 설치한 디스플레이로 레이싱 영상을 송출했다.

특히 F1 경기장 빌딩 루프탑에 수평으로 설치한 총면적 약 2617㎡ 규모 로고 LED 사인지가 압권이었다.

삼성전자가 그랑프리에 공급한 총 LED 모듈은 2만5000여개다.

/김서현 기자 seoh@

CU, 장애인 위한 '착한 픽업' 서비스

BGF리테일, '착한 기술 앱' 제휴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사)착한기술융합사회의 '착한 기술 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착한기술융합사회(GTCS)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 융합기술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이들이 론칭한 착한 기술 앱은 매장 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동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



CU가 착한 기술 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비스를 도입한다.

된 사·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앱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사전 주문한 후 가까운 CU에서 '차 안 픽업' 또는 '매장 앞 픽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전자, 한빛예술단 초청 연주회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모색

LG전자가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빛예술단 초청 연주회를 연다.

한빛예술단은 전원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지휘자와 악보 없이 단원들이 곡을 외우고 서로 호흡을 맞춰 관현악 합주를 펼친다.

장애인 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연이나 수화, 화면해설 등 체험을 곁들인다.

이번 초청 연주회는 LG사이언스파크 근무 임직원을 위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이우기 인하대 교수, 특허청장상 수상

생성형 AI 디퓨전 모델 다뤄

인하대학교는 이우기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사진)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의 2023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우기 교수는 인하대 권민지 BK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전공 대학원생, 김찬영·이건휘 산업경영공학과 학생과 함께 '딥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음성 복제 시스템을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했다.

또한 '디퓨전 모델에서 오류 데이



터를 통한 생성 모델의 구조적 원리와 취약성(Unveiling the Generative Challenges of Diffusion Models through Corrupted Data)'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NeurIPS 학술대회에 논문이 채택됐다.

/이현진 기자 ih@

인사

◆서울커뮤니케이션스 △본부장 안형준

부음

▲이병규(전 금융감독원 금융지도국장)씨 별세, 조용자씨 남편상, 이정규(현대해상 감사파트 수석)·이수연(워싱턴주립대 식품과학과 교수)씨 부친상, 류미경씨 시부상, 이영수(워싱턴주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 19일 오전 5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

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정오. 02-2227-7500

▲김선남씨 별세, 김경민(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차장)·김경표(마이엠수학학원)씨 부친상, 이미숙(진산중학교)·최현덕(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씨 시부상 = 18일 오후 8시 50분,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전북 순창 선영. 02-857-0444 ▲김석만씨 별세, 변창훈(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씨 장인상 = 18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 20일 오전 6시 40분, 청야공원, 053-819-1001







삼성생명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생보사 자존심 지켰다  
08



건강관리  
소비자 잡아라  
식품업계 '오트' 출시  
니



노티드월드에 진열되어있는 노티드도넛. /신원선 기자

# “맛과 디자인에 행복해하는 고객들로 힘 얻어요”



노티드 도넛

조정현 GFFG R&D 매니저

매장서 3년 반, R&D 2년째 근무  
각종 베이커리 메뉴들 기획·개발

고객들 피드백 듣고 신메뉴 반영  
도넛디자인 영감 다양한 곳서 얻어  
“예쁜 베이커리 디저트 만들고 싶어”



조정현 GFFG R&D 매니저.

/사진영 기자

형형색색 포근한 파스텔톤의 색감과 아  
기자기한 디자인, 도넛 속 짙은 크림으로  
유명한 노티드 도넛은 GFFG 베이커리 R  
&D 팀에서 탄생했다. 특히 노티드 도넛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조정현 GFFG R&D  
매니저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조정현 매니저는 노티드 도넛 매장에서  
3년 반 근무하고 R&D 팀에서 근무한지 2  
년째로 노티드 도넛과 컵케이크, 각종 베이  
커리 메뉴를 담당해 기획·개발하고 있다.

맛별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 학창시절부  
터 요리에 관심이 있던 그는 고등학교 3학  
년, 대학교 학과 선택 때 '제과제빵' 쪽으  
로 진로를 결정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베  
이킹에 큰 꿈을 갖고 GFFG에 입사, 노티  
드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R&D 팀에 오기 전에는 도산공원 1호  
점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집에  
서 매장까지 거리가 멀어 새벽 4시에 기상  
해야 했었는데, 약 3년 동안 그렇게 출퇴근  
을 했어요.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투정보다  
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습니다. 제 꿈을 위해 체력적으로 힘들

어도 견딜 수 있던 것 같아요. 매장 규모가  
늘면서 관리자(팀장)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후에 운이 좋게 R&D 팀에 합  
류하게 됐어요.”

도넛과 컵케이크를 개발하면서 가장 신  
경쓰는 부분은 맛이다. 조 매니저는 “출시  
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다음 제품을 개발할 때 반영한다”며 “고객  
들의 의견과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고려해  
상품을 기획한다”고 말했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잘 팔리는 제품은  
'우유생크림 도넛'이다. 쫄과 인절미, 흑임  
자 등을 베이스로 한 도넛은 중장년층들도  
많이 찾는다. 보통 한 가지 제품 개발에 소  
요되는 기간은 한달이다. 완성되기까지 주  
기적으로 맛 보고 당도 조절을 해서 전체  
적인 맛 조절 과정을 거친다. 크림도넛의  
원조격인 노티드 도넛은 압도적인 맛과 양  
의 크림을 자랑한다. 크림 제형이나 맛 조  
절은 어렵지 않지만, 곰돌이나 꽃 등 도넛  
의 디자인에 따른 어려움은 있다고.

노티드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캐리  
터 IP가 차별점이다. 노티드는 2017년 신

사동 작은 도넛가게를 오픈한 지 약 6년 만  
에 매출 500억원대 규모 외식브랜드로 급  
성장했다.

노티드의 가파른 성장 비결은 외식업을  
넘어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 마케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단순한 도넛 외에 브랜드  
만의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선호하는 MZ  
세대만 특유의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것.  
이를 위해 노티드는 모든 시그니처 캐릭터  
자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면서 브랜  
드 세계관을 확대하고 있다.

조정현 매니저는 도넛 디자인의 영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적인 디자인은 셰프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회의하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쉬는 날 다양한 디저트 가게를 돌아다니면  
서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한다”며 “또 서점  
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맛과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한 디자인 등 모  
든 면을 만족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개발해야 하는 점이 힘들지만, 고객들의 반  
응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가장 작업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은 최근  
선보였던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기념  
노티드 x 라이엇 게임즈 한정판 도넛이다.

노티드 x 라이엇 게임즈 한정판 도넛은  
'케인' '하트스틸' 도넛 2종으로 먼저 케인  
도넛은 녹진한 누텔라 바닐라 크림과 체리  
필링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달콤한 맛과 상  
큼한 풍미를 강조했다. 노티드 시그니처  
캐릭터 스마일리에 케인의 익살스러운 표  
정을 구현했다. 하트스틸 도넛은 노티드의  
베스트셀러 우유 생크림을 베이스로 하트  
초콜릿 쿠키에 하트스틸 로고를 담아 특별  
함을 더했다.

조 매니저는 “원하는 디자인과 맛을 전부  
녹인 제품이라서 컬러배 작업하면서도 즐  
거웠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  
베이션 제품을 기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매니저는 입사 후 3년 동안 새벽에 출  
근하던 생활 패턴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  
도 제품 개발이나 신제품 교육 등 내부 이  
슈가 있을 때에는 일찍 집을 나선다.

“새벽에 출근해 일하고 집에 오면 밤 11  
시였던 때도 많았죠. 그 때는 또래 친구들  
보다 출근이 빠르니까 저만 바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더라고요. 저보다 나  
이 많으신 분들도 그 시간에 출근하시고  
바쁘게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  
람이 이 시간에 출근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가족같은 분위기의 저희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맛있고 예쁜 베이커리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의견  
을 조율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  
아가야죠.”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길저스알렉산더 40점' NBA 오클라  
호마시티, 4연승 행진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7개월 만에  
필드 복귀 /사진 뉴시스

▲ 롯데 "울버햄튼, 황희찬과 재계약  
논의... 협상 긍정적"  
▲ LG 오지환·KIA 박찬호,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



▲ 'U-17 월드컵 전패 탈락'... 변성환 감독  
"책임 나한테 있어"  
▲ A매치 5연승 노리는 클린스만호, 21  
일 원정서 중국과 격돌 /사진 뉴시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경! 플라스틱 인생 2회차 축!

# 이번 생은 **에코시드**로! 새롭게.이렇게.

자원의 소비가 더 이상 지구의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롯데케미칼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소재 에코시드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시대를 열어갑니다.

